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03 호

2019 년 5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2019' [지식파트너-UNGC] 세션 초청 (5/14)
2. UNGC CEO Water Mandate - CDP Water 업무협약 체결 (4/24)
3. <부산·울산> (4/25), <대구·경북> (4/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개최 결과
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회원사 사용 안내

■ 본부 소식

1. 혁신적 다자간 파트너십, SDGs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
2. SDGs 달성을 위해 매년 2.6 조 달러가 필요하다. 유엔, CEO 협력체 결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 발족
3. 증권거래소는 SDGs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4. 본부 발간 및 소개 자료
- '소셜 오디팅 시 성평등을 위한 가이드' (BSR)

-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인 성장 달성: 사회적 대화 기업 사례' (ILO)
- RELX SDG 리소스 센터 (RELX 그룹)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2. [SDGs 솔루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내구성 높은 도로 만들기
3. [Global Goals in Action] 나투라 앤 코(Natura & Co)
4. [Goal 3, 5, 12]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아모레퍼시픽

■ UNGC 회원 뉴스

1. 부산경제진흥원,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사회적 책임 이행
2. 신한은행, 친환경과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후순위채 4억 달러 발행
3. 국민연금 CIO "사회책임투자 확대...가이드라인 마련"

■ CSR 뉴스

1. CDP, 산업계 환경문제 인식전환 이끌어
2. UNDP urges Korean private sector to eng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가 바꾼 주총 풍경 3가지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2019' [지식파트너-UNGC] 세션 초청 (5/14)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ing no one behind)'를 모토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역할과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 SDGs는 이제 세계 공용어로서 기업의 미래와 장기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SDGs 연계와 이행은 필수입니다."

본 세션은 SDGs 달성을 위해 UNGC가 제시하는 기업 시민의 참여 방안을 알아보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어떻게 SDGs를 기업 전략 및 정책에 내재화 시키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앞서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 성장의 비결을 공유합니다.

행사개요

2019년 5월 14일(화) 오후 4:20 - 5:20 영빈관 토포즈룸, 신라호텔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선일보 | 참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 (참가비: 무료)

시간	프로그램
16:20 - 16:22	2' 오프닝 및 스피커 소개 - 좌장: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6:22 - 16:37	15' 발표 1: SDGs 글로벌동향 및 기업 참여의 중요성 - 수 올처치(Sue Allchurch),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지원팀 총괄
16:37 - 17:07	30' 발표 2.: 기업의 SDGs 이행사례_1 - 카나코 후쿠다(Kanako FUKUDA), 스미토모 화학 CSR 이사 발표 3: 기업의 SDGs 이행사례_2 - TBD
17:07 - 17:20	13'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패널: 수 올처치(Sue Allchurch),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지원팀 총괄 - 패널: 카나코 후쿠다, 스미토모 화학 CSR 이사

* 선착순 마감



수 올처치(Sue Allchurch),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지원팀 총괄

수 올처치(Sue Allchurc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참여지원팀 총괄이다. 그녀는 기업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기반한 대담한 혁신과 책임 있는 비즈니스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녀는 소비재 브랜드와 세탁 혁신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맡았던 모든 포지션에서 그녀는 제품과 공급망, 아이디어 개발에 있어 브랜드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목적 달성을 이끌었다.

그녀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랐으며, 십대시절 어린이를 보호하는 베트남 난민촌의 UNHCR에서 일했다.



카나코 후쿠다(Kanako Fukuda), 스미토모 화학 CSR 이사

카나코 후쿠다(Kanako Fukuda) 이사는 스미토모 화학 CSR 팀의 책임자로 그룹 내에서 SDGs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9개 부서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촉진위원회의 사무국 대표를 맡아왔다. 후쿠다 이사는 2002년부터 풀리머 첨가제 세일즈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풀리머 첨가제 R&D 팀에 있을 때는 제품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그녀는 신기술이 SDGs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협력한다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후쿠다 이사는 유기화학 학사를 수료했으며, 2016년부터 일본 환경부 주관 회의에서 SDGs 이해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다.



*본 초청장은 해당 세션에만 적용됩니다(오찬 및 이외 세션 제외)

[\[초청장 다운받기\]](#)

[\[신청 바로가기\]](#)

[\[원문보기\]](#)

2. UNGC CEO Water Mandate - CDP Water 업무협약 체결 (4/2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및 CDP 한국위원회는 4월 24일(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CDP Korea Report 2018 발간,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의 물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CDP Water와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Water Mandate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CDP 한국위원회는 물이 인류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물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CDP한국위원회 공동협력 양해각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CDP 한국위원회는 물이 인류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우리는 물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알리고, 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 우리는 기업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EO Water Mandate에 참여하고, 동시에 CDP Water를 통해 물 경영 정보를 적극 공개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 협력한다.
3. 우리는 기업이 물에 대한 책임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2019년 4월 24일

아울러, 본 행사에는 제 8 대 유엔사무총장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유엔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 있는 성과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것이라고 밝히며, 2016 년부터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처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이전 2°C에서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특히 기업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변화를 주도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보의 힘과 투자자의 행동주의를 활용하는 CDP Water 와 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특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EO Water Mandate 간 협약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CEO Water Mandate 은 수자원 관리를 기업경영의 우선순위에 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기업들의 플랫폼으로 기업의 전략수립과 해결방안 개선에 주목하며,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 기회 및 유용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50 여개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기업이 참여 중에 있으며, 매년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수자원 문제에 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기업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EO Water Mandate 참여 조건

- 1)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 2) 6개 분야(운영, 공급망·유역관리, 공동노력, 공공정책, 지역사회 참여, 투명성)에 대한 CEO의 의지를 담은 서한 제출
- 3) 매년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이행사항 보고

[Water Stewardship Toolbox 안내](#)

[\[원문보기\]](#)

3. <부산·울산> (4/25), <대구·경북> (4/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개최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지역 소재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UNGC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지난 4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부산·울산, 대구·경북 지역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6월에는 대전·세종, 광주·나주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설명회는 지역 소재의 UNGC 회원사 및 잠재 회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동향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지역 소재 우수기업 사례 ▲UNGC 가입 혜택 및 주요 정책 등을 공유하고 UNGC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동건 회장과 박석범 사무총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회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참석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통찰력을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과 각급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동향과 SDGs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 각국의 CSR 법제화 추세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반부패 법제화 강화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 요구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은 신뢰도 향상과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보편적 가치 이행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UNGC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ESG 성과를 낸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재무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UNGC 에 대해 소개하고, UNGC 의 이슈별 플랫폼과 다양한 활동 및 참여 기회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아젠다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리스크를 예방하고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SDGs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과 SDGs 목표를 연계하고, 새로운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UNGC 및 SDGs 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다음 발표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소위 위원장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을 주제로 “다섯가지 사회적 가치를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 경영이며, 이것은 UNGC 의 4 대 분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며 UNGC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이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고, 민간이 이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인권경영을 확산·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여부를 반영기로 했으며 각 기관이 처한 환경을 감안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수 회원 사례발표 이후, UNGC 한국협회 임애화 선임연구원은 'UNGC 한국협회 개요, 가입혜택, 절차 및 연회비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UNGC, CSR, SDGs 최신 동향 제공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제공 ▲COP, COE 보고서 작성 지원 및 자문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조달시장 대응 지원 ▲SDGs 이행 자문 등을 회원사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UNGC 에 가입하여 지속가능성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독려했습니다.

■ 부산·울산 설명회

먼저, 부산경제진흥원과 UNGC 한국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후원한 부산·울산 설명회는 40 명의 기업 대표 및 실무진들이 참석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박기식 원장은 “인권보호와 노동권을 인정하며, 반부패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투명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부산경제진흥원이 앞장설 것”이며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타기관 및 기업 등에게 보다 모범적이고 성숙된 진흥원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번째로 한국남부발전 권오현 차장(변호사)이 인권경영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자체 2017 년 인권영향평가에서 미흡한 4 개 분야(인권경영체제, 산업안전, 고용상 평등, 공급망 관리)를 선별하고 직원·협력사 니즈를 파악하여 2018 년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인권 친화적 경영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는 KOSPO’라는 인권비전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기반구축 ▲내부직원 근무조건 개선 ▲이해관계자 권리보호의 전략방향을 수립하였다. 특히, 발전소 주변 환경이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환경설비 개선, 미니태양광, 공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폐비닐 활용 정제류 발전연료화 등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향후 국내외 자회사 글로벌 표준 인권 헌장 및 인권경영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지역주민, 협력사 인권(안전, 환경 등) 개선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인권경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사례발표로 기술보증기금 조정희 부부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3 번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는 “당사가 추구하는 환경보전 개념 정립과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주요 사업으로는 저탄소 경제 및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기후·환경분야의 기술 및 기업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영 관리 차원에서는 직원의 환경보전 인식 향상 및 자체 개선활동을 통한 에너지 절감 추진과 친환경·녹색제품 구매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보증분야(신재생에너지 협약보증, 환경혁신 신사업 협약보증, 기후기술 보증, 스마트팜 기업 보증)를 육성하여 기후 기술, 환경 영향 최소화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등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우수 기후기술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 대구·경북 설명회

동 설명회는 대구광역시, 대구상공회의소, UNGC 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DGB 금융지주에서 후원하였으며, 약 40 명의 기업 대표 및 실무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홍석준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기업식으로 접근하는 주제가 매우 흥미롭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오늘 설명회가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대구광역시 내 공공 및 민간 기업에 아이디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사례발표로 DGB 금융지주 김희락 부소장은 “지역밀착경영이 주요 경영전략이었던 DGB 금융그룹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협력사 상생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ISO 26000 수준진단 ▲윤리경영 추진체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인권보호체계 강화 ▲DGB 사회공헌재단 운영 ▲환경경영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공유해 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윤리적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페어플레이어클럽서약’과 여성친화금융,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리고 여신심사 프로세스에 친환경부문 반영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번째로 한국가스공사 심승기 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시범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한 인권경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권경영헌장 개정 ▲인권경영규정 제정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위원회 구성 등 인권경영 체계 구축 과정을 설명하고, 기존 인권위의 기관운영 체크리스트에 3 개 분야 32 개 체크리스트를 추가한 13 개 분야, 190 개의 ‘기관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보인권보호’, ‘여성권리, 모성보호’, ‘직원 인권 보호’ 등을 공사에서 직접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 개분야, 58 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요사업 체크리스트’도 소개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가점검’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독립성, 신속성, 효과성을 갖춘 공사만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면서 각 부서차원에서도 점차 여성과 임산부를 고려하는 정책이 나오는 등 점차로 조직 내 인권경영이 스며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각 기관의 인권정책은 그 기관에 맞는 맥락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 설명회는 지역에 소재한 UNGC 와 CSR, SDGs 에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오는 6 월에 대전·세종, 광주·나주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갤러리 바로 가기\]](#)

[\[UNGC 참여 방법 및 혜택안내\]](#)

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회원사 사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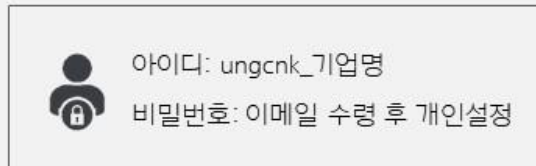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기능」 시스템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새로 개편하는 홈페이지는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슈별 자료 및 행사소식 통합·분류를 통한 효율적 정보 접근
- 회원사 아이디 제공 및 로그인 기능 추가를 통한 검색 기능 강화 및 가독성 제고, 자료 다운로드, 1:1 문의 기능 강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회원사 여러분들이 기업 지속가능성 및 SDGs에 대한 정보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 아이디는 5월 2일(목) 이후부터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로그인 정보는 다음과 같이 생성될 예정입니다.



Tier 선택을 완료한 회원사부터 순차적으로 메일이 송부될 예정이오니, 원활한 로그인 정보 제공을 위해 조속한 선택 완료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 (02-749-2149)



협회 발간자료 다운로드

다양한 톨·가이드라인·본부 발간물 번역자료·
회원사 서베이 등 주요 선별자료 온라인 제공

온라인 1:1 커뮤니케이션

회원사가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하여 문의·요청사항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참여 활성화



[\[원문보기\]](#)

본부소식

1. 혁신적 다자간 파트너십, SDGs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

2019년 4월 11일 열린 [2019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파트너십포럼](#)에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다자간 파트너십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폐회사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략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하면서 “단기적인 소규모 파트너십 형성에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다자간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유엔의 발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요한 시기에 다음 단계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유엔파트너십사무국(UN Office for Partnerships)이 매년 주최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파트너십 포럼에서는 정부, 기업 및 시민 사회의 대표가 모여 혁신적인 다자간 파트너십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집단적 전문성, 기술력 및 자원을 만드는 혁신적이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 지 생각해볼 것 바란다.”고 말하며 “파트너십이 가진 잠재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30 아젠다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포괄적인 SDGs 구현을 이끄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본 포럼은 다자간 파트너십이 SDGs 구현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파트너십 형성은 아젠다 전반에 걸쳐 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파트너십에 관련된 SDG 목표 17 번이 지속가능발전에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결합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 부문의 협력과 실질적 영향을 이끌어내는 국가적 수준의 파트너십 플랫폼의 좋은 예로 [글로벌콤팩트의 로컬 네트워크](#)가 소개되었습니다. 글로벌콤팩트 인도네시아협회의 조세핀 사토노(Josephine Satyono) 사무총장은 "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시민 사회 및 학계와 기업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협회는 기업이 유엔의 파트너로서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콤팩트 로컬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조세핀 사토노(Josephine Satyono) 글로벌콤팩트 인도네시아협회 사무총장

한편 본 포럼에서는 혁신적인 금융 파트너십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간 2.5 조 달러의 자금을 충족하는 데 있어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원문보기\]](#)

2. 유엔, CEO 협력체 결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 발족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4 월 15 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CEO 협력체 결성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우수기업의 CEO 들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Global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투자를 증대시키는데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해법에 관한 민간부문리더들의 통찰을 활용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2019 개발을 위한 금융포럼(Financing for Development Forum)에서 발언하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2019 개발을 위한 금융포럼(Financing for Development Forum)의 민간부문 리더들과의 오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2.6 조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가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연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자원만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에의 투자는 선의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모두의 장기적 번영과 기후, 환경, 그리고 천연자원의 보호를 위한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들을 협력체에 초청하였고 몇몇은 이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사무총장의 초청을 수락한 회사 중 하나인 핼코(PIMCO)의 미국주요전략 최고정보관리책임자 스캇 마더(Scott Mather)는 오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재원 격차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말하는 재원 격차는 투자 가능한 시장의 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시장에는) 약 200 조 미 달러 규모의 뛰어난 주식과 채권, 그리고 민간부문에는 수 백 조 달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첫 회의는 2019년 9월 제 74회 유엔총회의 일환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첫 회의부터 2021년 6월까지 본 협력체는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는 2021년 9월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유엔경제사회국(UN DESA)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조직하고 유엔의 여러 네트워크 및 여러 기구(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프로그램금융계획(UNEP FI), 책임투자원칙(PRI), 유엔지역별경제위원회), 그리고 세계은행과 같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그룹은 본 협력체의 행동계획 실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원문보기\]](#)

3. “증권거래소는 SDGs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유엔 본부에 모여 지역 자본시장의 역할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투자 격차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증권시장 규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증권거래소는 SDGs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SDGs를 위해 이 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협업해야 합니다," 라고 제임스 잔(James Zhan)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투자기업부장이 2019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개발자원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2019 투자박람회(2019 Investment Fair) 라운드테이블에서 언급했습니다.

SDGs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동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SDGs 중심의 금융상품을 개발과 동시에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을 포함한 지역시장의 투명성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거래소, 정책제안자, 규제자, 발행인, 투자자, 시민사회가 모두 협업하여 민간 금융 행위자들의 SDGs에 대한 지지를 증대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폐회사에서 다니엘 체스브로(Danielle Chesebroug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책임투자원칙(PRI)을 대표하여 "지역 차원의 협업을 확장하는 것은 PRI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의 일환으로 전세계의 증권거래소들과 협업해 진행하는 'SDGs 투자포럼(SDG Investment Forums)'의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브라질에서 진행된 SDG 투자포럼 파일럿 프로그램은 정부, 규제자, 투자자, 기업,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유엔과 함께 지역 차원의 SDG 투자 기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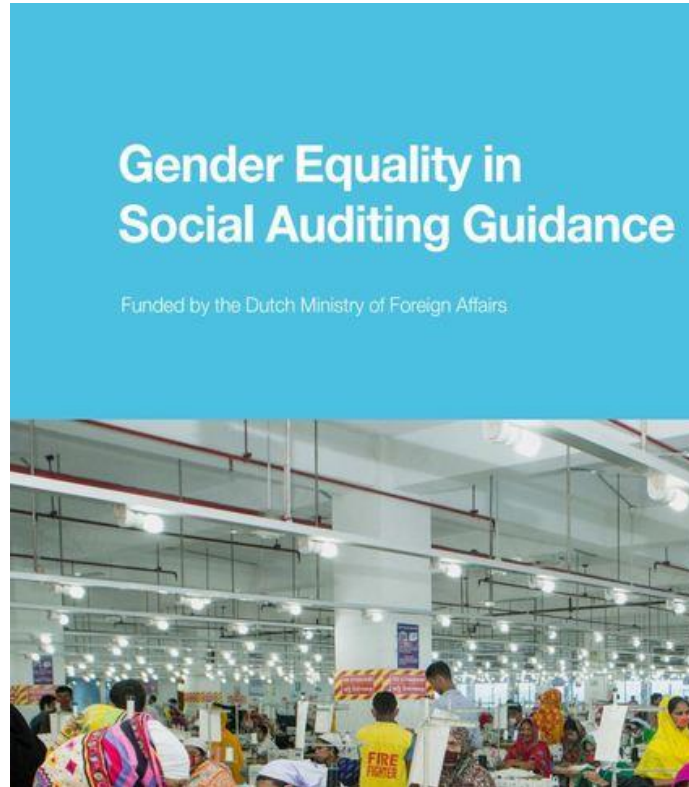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올해 말 남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투자를 위한 지역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라운드테이블(The Roundtable on Accessing Local Capital Markets for Long-term Investments)'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투자원칙(PRI), 유엔환경프로그램금융계획(UNEP FI),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함께 조직한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에 의해 개최되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개발자원포럼의 일부인 SDGs 투자박람회에서는 세부투자기회와 SDGs 투자격차를 줄이기 위한 주요 정책과 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부정책제안자와 기업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문보기\]](#)

4. 본부 발간 및 소개 자료

1) '소셜 오디팅 시 성평등을 위한 가이드'(BSR)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이 발간한 '소셜 오디팅 시 성평등을 위한 가이드(Gender Equality in Social Auditing Guidance)'는 소셜 오디팅(Social Auditing)의 방법과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소셜 오디팅은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이나 독립기관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하며, 강령의 기준과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 파트너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셜 오디팅을 공급자들이 기업의 최소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현장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와 노동현장에 특화된 문제점들은 공급자 행동강령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강령들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방법에도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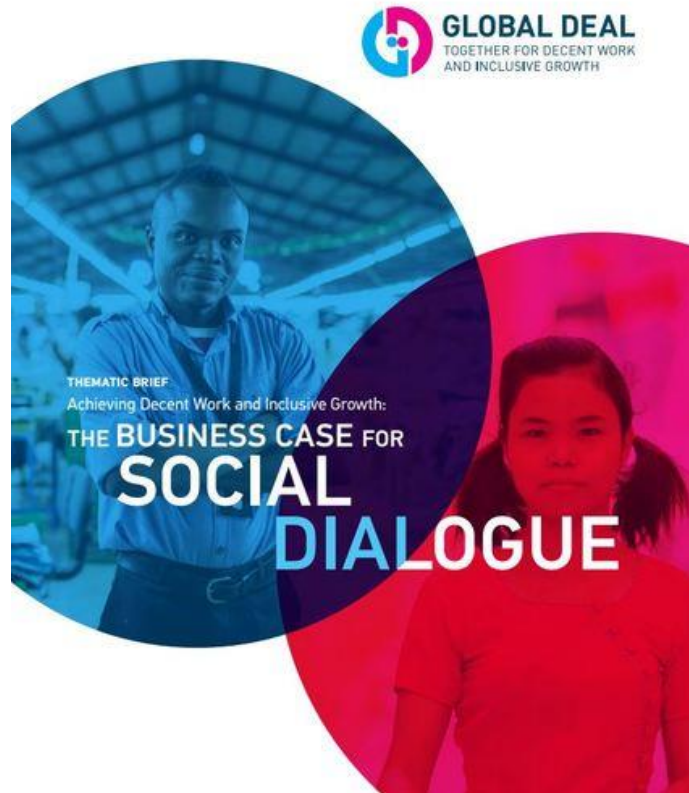
본 가이드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인지(gender sensitive) 관점에서 소셜 오디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지를 방해하는 현재 소셜 오디팅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존하는 감사 검증 방법과 공급자 행동강령의 여러 원칙들에 성평등 관점을 포함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 노동자 면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지 이슈를 파악할 때 이들의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봅니다.
- 노동자 참여적 접근과 같이 기존 소셜 오디팅과 연관은 없으나 기업들로 하여금 성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여성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 기업이 공급자를 모니터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들이 소셜 오디팅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문보기\]](#)

2)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인 성장 달성: 사회적 대화 기업 사례'(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는 노동자, 고용인, 정부의 대표들을 포함한 과정입니다.

집단적 협상과 노사정 삼자주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노동법과 노동시장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노동시장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기업에 생산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니다. 사회적 대화를 비용증가와 연결 짓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사회적 대화는 안정, 평등, 생산성,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는 단일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 실행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집단적 협상의 권리에 대한 인식
- 분쟁해결방안(중재 등)과 집단적 협의의 효과적인 적용, 강제를 위한 방법과 같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 노동자와 고용인들을 위한 독립적이고 대표적인 기관
-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
- 기술적 능력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 사회적 파트너의 집단적 협상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과정
-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장 협력 프레임워크
- 노동조합 간 효과적 협동

[\[원문보기\]](#)

3) RELX SDG 리소스 센터(RELX 그룹)



RELX SDG 리소스 센터는 RELX 그룹과 주요 파트너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SDGs 달성에 도움을 주는 과학, 법률, 기업, 행사 등의 최신 소식을 소개합니다. 본 정보센터의 목표는 UN 이 SDGs 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고객, 정부, 연구자, 기업, NGO, 개인들의 SDGs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를 넓히는 것입니다.

RELX SDG 리소스 센터의 콘텐츠는 기사, 보고서, 법률실무가이드, 도구, 웨비나, 영상, 행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 SDG 목표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RELX SDG 정보센터는 소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멘델레이(Mendeley)를 통해 SDGs 에 관한 심화 논의를 운영합니다. 각 SDG 를 위한 논의 그룹이 존재하며 해당 그룹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LX SDG Resource Centre 웹사이트 바로가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12 –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Goal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은 천연자원의 감소, 기후 변화의 가속, 인권 침해와 같은 결과와 깊이 연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와 생산은 전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증시키고 심각한 대기 오염에 일으켰으며,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켜 생업과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고, 물 부족을 심화시켰습니다. 폐기물들은 메탄 배출량 증가와 함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해양에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식량의 생산 및 소비는 생태계의 서식지 파괴, 어류의 남획, 오염 및 토양 감소로 인한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생산 및 소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감안해 볼 때, 목표 12 는 기업 리더십을 위한 상당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책임감 있는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채택함으로써 기존 모델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및 신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공급망 운영 및 자체적인 에너지 순환과 자원을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 연장, 정확한 지속가능성 라벨 지정 그리고 사용 단계 및 폐기 관련 소비자 교육을 포함하여 자원 사용과 생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엔드 투 엔드 운영을 비롯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걸친 생산 및 소비 관련 지속가능성의 추적보고를 위해 해결책을 개발하고 구현 및 공유함으로써 투명성 및 보고 분야에서의 리더십 기회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 집약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내 기업 만해도 연간 6,000 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은 기업이 정부 규제 및 소비자 선호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가지도록 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인증 받은, 추적 가능한 제품을 선호한다는 많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기업이 원자재 가격 및 가용성의 변동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목표 12 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 생산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환경 피해 및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탄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BUSINESS ACTION 1

책임감 있는 순환 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구현

오늘날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중요한 자원 투입, 폐기물 발생,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손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업은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선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소싱 방법을 넘어서서 시스템 설계의 근본적인 재고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기업은 개인 및 공공 부문의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정보 기술을 비롯한 기술 역량 및 기술을 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도상국 특히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인류와 지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사례

- 대중교통 회사 A 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도시 및 국가 기관과 협력하여 대도시의 대중교통과 완전히 통합된 도시형 자동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기업은 고객이 전기차를 픽업하여 해당 지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는 "자유 승하차"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유기농 사탕수수 재배자 B 는 기술 혁신과 함께 재건 농업의 원칙을 이용하여 미개척 토지를 탄력 있는 재생 생태계로 만들고, 사탕수수 폐기물 기반의 바이오 연료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포괄적인 생산 및 수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개발자 C 는 건물 자재에 대한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 이하 C2C)원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적용 가능한 "생활 건물" 관리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 건물을 짓는 기술을 선도합니다.



BUSINESS ACTION 2

기업이나 공급망 운영에서 원자재 및 에너지 사용을 상당히 저감하고 순환사용루프를 형성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상당한 자원 사용하고 폐기물을 생성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 손실이 큰 비효율적인 공급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은 이러한 비효율성이 사회에 미치는 진정한 비용까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이용 등을 통해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 원자재, 재생불가능한 광물, 에너지, 포장 등의 부분에서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접근법을 통해 원자재와 에너지 사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공급망 자원순환루프를 형성하거나 지속가능한 공급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선두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발전된 기술을 대규모 에너지와 자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도상국에 전달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수사례

- 맥주 공장 A 는 기업, 정부,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잔여물로 빵, 바이오가스, 버섯, 수산양식에 사용되는 영양분 등 고가치 제품들을 만드는 제로웨이스트 맥주공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 회사 B 는 순환 관개 시설을 사용한 혁신적인 수직농법 제품을 개발하여, 일 년 내내 도시에 신선한 현지 채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 IT 기기 회사 C 는 가전기기, 컴퓨터, 핸드폰 등의 전자폐기물을 책임있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해체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인체나 지역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3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소비를 최대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고 소비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선도적인 기업들은 최소한의 자원사용이 가능한 설계와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적정수준의 제품 생명주기를 확보하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위해 쉬운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제품의 생명주기 전반에 제품과 서비스 혁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의 의미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르고,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교육을 하며, 인권과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소외되는 계층과 전세계적인 빈곤 계층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제품들의 접근성을 증대하여야 합니다.

우수사례

- ▶ 가전기기 회사 A 는 사용패턴을 인식해 자동으로 전원을 꺼주는 에너지 저감 상품들을 개발하여 선도적인 에너지 효율 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 글로벌 식품 회사 B 는 친환경 디자인, 책임있는 공급, 효율적인 포장, 재활용, 운영 효율 개선을 실행하며 2020 년까지 제로웨이스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자동차제조 회사 C 는 성능이 좋고 저렴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여 업계 전반이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 발전 회사와 협업하여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 제로웨이스트 식료품점 체인 D 는 매장 전체에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활용된 포장재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금융 기관 E 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거나 패시브 하우스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주택이나 사무실에 더 낮은 비용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4

운영 전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및 보고하고 해결책을 개발, 시행, 공유함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주기적인 보고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표와 인권과 관련된 실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장기적인 사회, 환경, 재무 성과와 함께 리스크 식별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수사례

- 신발 제조 회사 A 는 다양한 공급망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수립하고, 공장에서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파악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누적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레스토랑 체인 B 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식료품을 기록하고 품질 제품 정보를 알리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2. [SDGs 솔루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내구성 높은 도로 만들기

플라스틱로드(PlasticRoad)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일반 도로 표면보다 수명이 길고 극한 온도에도 버틸 수 있는 모듈식 도로 부품으로 업사이클합니다.

KWS 는 Wavin, Total 과 협업하여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규 모듈식 도로 시스템, 플라스틱로드(PlasticRoad)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번 사용된 플라스틱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 도로 부품으로 재활용됩니다.

플라스틱 도로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로드의 개발자들은 플라스틱 도로의 예상수명이 일반 아스팔트 도로보다 3 배 더 길고 무게도 가벼워 운송, 설치, 교체가 더 쉽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플라스틱로드는 -40°C에서 80°C 사이의 극한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듈 자체도 순환성, 편의성, 내구성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조립식 도로 부품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가 손상되었을 때 빠르게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고 망가진 부품만 교체가 가능해 도로를 만들고 수리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은 플라스틱로드의 시공시간이 아스팔트 도로보다 70% 빨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도로 부품은 내부가 빈 구조로 되어 케이블과 파이프가 지나갈 수 있고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여 도로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로드는 2018 년 9 월, 네덜란드의 즈볼러(Zwolle) 시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때 만들어진 30m 길이의 자전거 도로에는 218,000 개의 플라스틱 컵이나 500,000 개의 플라스틱 뚜껑과 맞먹는 양의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2018 년 11 월에는 히트호른(Giethoorn)에 또 다른 도로를 설치했으며 해당 기술을 주차장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Why you should care

비튜멘이나 타르라고도 불리는 아스팔트는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재생이 불가능한 석유제품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63 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으나 그 중 10% 미만의 플라스틱만 재활용됩니다. 플라스틱로드는 이미 현존하는 플라스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혁신과 인프라 구축

플라스틱로드는 훌륭한 경량성, 모듈성, 내구성, 배수성으로 일반 재료보다 도로 건설에 있어 더욱 지속가능하고, 탄성이 좋으며 자원 효율적인 재료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플라스틱 도로 건설은 시공 단계에서 고중량 운송수단을 적게 필요로 하여 탄소배출량이 적고 이는 도시 폐기물 관리에 있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플라스틱로드는 순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각 모듈은 재활용된 자재로 만들어졌으며,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하여 폐기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원문보기\]](#)

3. [Global Goals in Action] 나투라 앤 코(Natura & Co)



[\[영상 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나투라 앤 코(Natura & Co)의 대표이사인 호베르토 마르케스(Roberto Marques)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업 경영 전략 전반에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일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0 대 원칙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를 통해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서로 배우고 성과를 공유합니다. 또,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감을 받기도 하지요. 물론, 영감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발맞춰 보다 가치있는 경영목표를 수립하기도 합니다. 가령, 저희는 지속가능성, 원산지 관리, 탄소배출감소, 여성역량강화에 힘써왔고,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SDG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확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관계자분 여러분,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음 세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보다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30 의제에 기반하여 기업을 경영하면, 기업은 기업활동과 이윤추구라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더욱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Natura & Co는 항상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합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넘나들며 더욱 성공적인 경영전략을 배우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Natura & Co의 목표입니다.

4. [Goal 3, 5, 12]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아모레퍼시픽은 그룹 차원의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사회적 공동체와 함께 '포용적으로 성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순환 경제 달성'에 기여한다는 3대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전 지구적 이슈해결에 기여하고 더 아리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SDGs 전략 및 사례



아모레퍼시픽은 모든 여성들이 무한한 능력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때, 이 세상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SDG 5 번과 12 번 목표를 중점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 년부터 '20 by 20' Commitment 를 통해 SDG 3(SDG3.4: 2030 년까지 비감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예방치료를 통하여 1/3 수준으로 감소하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촉진한다.)과 SDG 5(SDG5.1: 2030 년까지 모든 형태의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종식한다.) 목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SDGs 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UN 총회 주산의 모습을 소개하고 Global Goals 을 향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여 2030 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 12.8: PROMOTE UNIVERS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LIFESTYLES)

'20 by 20' Commitment

'20 by 20' Commitment 는 2020 년까지 여성 20 만 명의 건강과 웰빙,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아모레퍼시픽의 약속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여성과 함께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곧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베트남 등 아모레퍼시픽 법인이 위치한 국가에서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 에서 진행하고 있는 Every Woman Every Child 라는 글로벌 무브먼트에 동참하여 우리의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very Woman Every Child 는 여성, 아동, 청소년의 건강 및 웰빙을 위해 2010 년부터 UN 이 진행하는 글로벌 무브먼트입니다.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5 년 이래 62 개국 150 여 개의 이해 관계자들이 EWEC 무브먼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8년 12월까지 총 287,180명 여성의 삶을 지원하여 20만명 목표의 144%를 달성하였습니다.

Women's health and well-being(여성의 건강과 웰빙):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12월 까지 여성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업을 통해 284,084명의 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Women's economic empowerment(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12월까지 여성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사업을 통해 3,096명의 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SDG 5(양성평등)이행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성역량강화 사업을 통합/재정비/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by20' Commitment의 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2025 타겟 리뉴얼 등 중장기 Commitment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뷰티 인사이트 저널 개발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SDGs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UN 총회주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Global Goals 를 향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여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 12.8: PROMOTE UNIVERSAL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LIFESTYLES) 매월 기획 저널을 통해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SDGs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널을 개발하여 대내외 소통하고 있습니다.

18년 게재된 총 11개의 저널은 총 670만 건 도달율을 달성하였고, 13만여 명이 콘텐츠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의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은 기획 저널의 경우 국내 주요 포털 매체인 네이버, 다음(카카오토리), 브런치 메인에 노출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 UN 총회주간의 디지털 콘텐츠를 잘 정제하고 편집하여 UN 총회 큐레이션 매거진 <뷰티 인사이트>를 출판할 계획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아모레퍼시픽의 시선으로 담아낸 <뷰티 인사이트>는 매호 직접 유엔총회 주간에 참여해 그 속에서 얻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아모레퍼시픽만의 시선으로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뉴욕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주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나아가 우리 일상 속 아름다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SDGs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뷰티 인사이트> 매거진은 출판을 통한 수익금을 모두 WWF 에 기부하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Global Goal 중 하나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SDGs 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제품 지속가능성 강화

소비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가치 실현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들의 변화된 니즈에 대응하고, SDG 12번 목표인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환경적 가치를 높인 지속가능제품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제품 연구 및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 밸류 체인 단계별로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총 19 가지의 지속가능제품 유형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품 개발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R&D 와 마케팅, 디자인, 포장재 개발 등 유관 부서가 함께 논의하여 제품별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설계하고 제품 개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신제품 38.1%에 환경 및 사회 친화적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연자원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화학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유래 원료 강화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팜유의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이 포장재의 경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되는 산림에서 유래한 지류(FSC 등)를 셀화수와 라네즈, 마몽드, 헤라, 프리메라, 아이오페, 한울 등의 브랜드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니스프리와 리리코스 제품에는 감귤껍질이나 해초에서 유래한 식물 부산물 종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낮추기 위해 미장센과 러, 해피바스, 한울, 프리메라,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제품 용기에 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였습니다. 택배 포장의 경우, 플라스틱 비닐 완충재를 FSC 인증 종이 완충재로 대체하고, OPP 테이프는 종이 테이프로 변경함으로써 2018년 출고 박스 수 기준으로 환산시,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70%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에어리스 펌프 방식의 이중 구조 용기를 일리윤 제품에 적용해 소비자 사용 후 버려지는 내용물을 5% 미만으로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제품 생산과 소비 활동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이슈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3.4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3분의 1로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은 영양에 관한 국제회의(ICN)에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 채택한 '영양에 관한 세계 선언 및 행동계획(1992)'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생활 양식과 부적절한 식단으로 인한 비감염성 질환을 언급했습니다. 풍요와 도시화로 인한 지방, 알코올, 나트륨의 과다섭취, 운동 감소, 스트레스 증가가 맞물려 비감염성 질환이 다수의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엔의 정치선언(Political Declaration, 2011)에서 약 20개국의 지도자들과 대표단들은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통제에 대해 논의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WHO, 2013)에서는 심장계 질환, 암, 만성 호흡기 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전세계 주요 사망 원인으로 제기했고,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세계 사망의 6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조기사망에 포함되는 30~70세 사이의 1천4백만 명의 사람들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더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감소를 추진합니다.



SDGs 세부목표 5.1은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1948년 유엔세계인권선언(UDHR) 제2조에 처음 명시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유엔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 부인 및 제한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1년 발효되었습니다. 동 회의의 결의안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특징과 의미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을 SDGs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12.8은

모든 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한 트리비시 선언(1977)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교육의 목표로 인식제고, 지식, 태도, 기술, 참여를 꼽았습니다. 동 선언의 내용에 기반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에서 채택한 의제21(1992)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도록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인식을 제고하고, 훈련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사회개발 정상회의(WSSD)에서 채택한 요하네스 버그 이행계획(2002)에서는 청년의 인식제고와 교육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요하네스 이행계획에서 제안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YFP)에서 소비자 정보 프로그램(Consumer Information Programme, CIP)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교육(Sustainable Lifestyle and Education, SLE)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고, SDGs에서도 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UNGC 회원뉴스

1. 부산경제진흥원,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사회적 책임 이행

부산경제진흥원 뉴스 **NEWSIS** 지방 > 지방일반

부산경제진흥원,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사회적 책임 이행

허상천 기자 | heraid@newsis.com

등록 2019-04-25 16:29:11



- 부산경제진흥원이 자발적기업시민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이번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한 활동,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4대 분야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대한 10대 원칙을 지지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함.
- 부산경제진흥원 박기식 원장은 "인권보호와 노동권을 인정하며, 반부패를 지지하고 실천하는 투명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부산경제진흥원이 앞장설 것"이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타기관 및 기업 등에게 보다 모범적이고 성숙된 진흥원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함.

[뉴스시스](#)

2. 신한은행, 친환경과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후순위채 4억 달러 발행

금융·증권

신한은행, 친환경과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후순위채 4억 달러 발행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 입력 : 2019-04-16 16:14:25

신한은행이 4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신한은행은 4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후순위 채권' 발행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청약이 마무리된 이번 후순위채는 신한은행이 친환경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으며 만기는 10년이다.



발행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에 1.57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이는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들 가운데 가장 낮은 가산금리다. 가산금리가 낮다는 것은 발행기관을 향한 시장의 신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은행 기업로고.

- 신한은행은 4 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후순위 채권' 발행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 일 밝힘.
- 15 일 청약이 마무리된 이번 후순위채는 신한은행이 친환경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으며 만기는 10 년임.
-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8 월 원화 그린본드 발행에 이어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채권 발행에 성공해 의미가 크다"며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비즈니스포스트](#)

3. 국민연금 CIO "사회책임투자 확대...가이드라인 마련"

국민연금 CIO "사회책임투자 확대...가이드라인 마련"(종합)

송고시간 | 2019-04-18 17:05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해 수탁자책임 활동 투명하게 공개"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18일 "앞으로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은 금융투자협회와 책임투자원칙기구(PRI) 공동 주최로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사회책임투자(SRI) 세미나'에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책임투자 원칙을 제·개정하고 책임투자 적용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힘.
-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 마련한 주주권 행사 로드맵에 따라 기업과 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사회 구성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국민연금 CIO 는 "책임투자를 실행하려면 ESG 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기업의 ESG 관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아직 공시 수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시 규정 개정 등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책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 책임투자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연합뉴스](#)

CSR 뉴스

1. CDP, 산업계 환경문제 인식전환 이끌어

CDP, 산업계 환경문제 인식전환 이끌어

Korea Report 2018 '기후변화대응·물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현대차, 신한금융,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기후변화 대응 최우수 기업

김봉운 기자 승인 2019.04.25 17:55 댓글 0

[글래드호텔=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CDP는 기후변화·물·산림자원 등 환경과 관련해 세계 금융기관들이 주요 기업과 도시 등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나 대출 등 금융활동에 반영하는 글로벌 정보공개프로젝트이다.

전 세계 92개 이상의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데 CDP는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CDP 데이터는 신뢰성이 높아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CDP는 전세계 주요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혹은 이니셔티브)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Rate the Raters' 평가결과 DJSI, FTSE4Good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이어가고 있다.

- CDP Global, CDP 한국위원회는 4월 24일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CDP Korea Report 2018 발간과 더불어 '기후변화대응·물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주최·주관함.
-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서진석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의 환영사와 홍일표, 이원욱 국회의원, 이동건 UNGC 회장,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됨. 이어진 2부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으로 본 행사에 앞서 양춘승 CDP 한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시상기준을 설명했다.
- CDP Water 우수기업 선정은 CDP Water의 정보공개 대상기업은 물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나 물 위험성이 높은 기업(공기업 포함)을 50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2년 연속 LG 이노텍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됨.
- 다음으로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Carbon Management Honors Club) 선정으로 올해 국내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에 기후변화경영 관련 정보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신한금융그룹', 'LG 디스플레이'가 탄소경영 최우수 기업 5개만 선정하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Carbon Management Honors Club)에 편입됐다고 밝힘.

[환경일보](#)

2. UNDP urges Korean private sector to eng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Diplomatic circuit] UNDP urges Korean private sector to engage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By Park Han-na

Published : Apr 15, 2019 - 17:48

Updated : Apr 15, 2019 - 17:48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s Seoul Policy Center held a workshop for South Korean companies to help them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s in more strategic ways.

The conference, titled "Private Sector: Business as SDG Accelerator Workshop" and co-hosted by the center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ok place Friday in Seoul.



(UNDP's Seoul Policy Center Facebook)

- UNDP 서울정책센터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득을 얻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워크숍, '유엔개발계획-민간 파트너십 워크숍'을 주최함.
- 발레리 클리프 UNDP 아태부국장은 민간부문이 SDGs 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전세계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말함.
- UNDP 서울정책센터는 2030년까지 모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SDGs 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 시민사회, 학계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경아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민간부문의 거대한 가능성이 SDGs 실현과 연결된다면, 개발도상국에서의 고용, 경제성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설명함.

[The Korea Herald](#)

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가 바꾼 주총 풍경 3가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가 바꾼 주총 풍경 3가지

김은성박병률 기자 kes@kyunghyang.com
입력 : 2019.04.22 06:00:10

- ① 기관투자가 적극적 활동
- ② 주주 배당성향 대폭 확대
- ③ 전자투표 도입 회사 늘어

특징	주요 내용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발	·국내외 기관투자가 활발한 경영개입 ·배당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기업 공개
배당 확대	·기업의 53%, 배당성향 전년 대비 증가 ·기업의 45%, 보통주 주당 배당금 증가
이사·감사 보수 동결	·이사·감사 보수한도가 전년과 같은 경우가 80%
전자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한 회사 8% 포인트 증가 ·10대 그룹 상장사의 전자투표 도입률은 낮아
슈퍼주총대이어전	·올해도 3월의 8명임원에 약 96%의 정기주총 열려
논란있는 총수일가 연임 여전	·특수관계인 및 우호지분 견제 못해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처음 도입한 올해 주주총회는 배당이 확대되고, 이사 및 감사보수한도가 제한되며 전자투표제가 확대되는 등 주주친화적인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2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2019년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한 217개 상장기업(코스피 181개사, 코스닥 36개사)의 주요 주총 안건(1624개) 중 반대권고한 안건은 10.84%인 176개로 집계됨.
- 이 같은 반대 비율은 1892건 중 234건을 반대했던 전년 12.37%보다 1.5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대되고 기관과 소액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의결권자문사들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과 다른 결과임.
-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확대된 것도 특징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53%는 배당성향이 전년 대비 증가함.
-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무리하게 증액하려는 시도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한 경우가 80%였음.

경향비즈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4 월 16 일부터 5 월 2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4 월 16 일부터 5 월 2 일까지 4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내부장애인협회
- 한국국제봉사기구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감정원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5 월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분기 및 2/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KEB 하나은행, 두산중공업, GS 칼텍스, GS 건설,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타이어, SK 텔레콤, 한국가스공사, CJ 대한통운,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롯데홈쇼핑, 한국석유공사, LS 산전, 휴맥스,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NS 쇼핑, 케이티하이텔,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BGF, 유니베라, 카라반이에스, 삼익전자, 한국전자인증, 제씨콤,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ATUS, 디씨티 오토, 메씨인터내셔널,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산업정책연구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얼반유스아카데미, 사람과세계경영학회, 세계청소년문화재단, 한국품질재단, 내부장애인협회, 밀알심장재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전 KDN,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코이카, 서울특별시,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